

## 박희병의 『저항과 아만』

송 용 준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 이 책은 서울대 국문과 박희병 교수가 18세기 조선사회의 ‘괴물’이자 ‘이단아’였던 이언진(李彦璵: 1740-1766)의 시집 『호동거실』에 수록된 170수의 시를 번역하고 평설을 붙인 것이다. 저자가 ‘책머리에’에서 밝힌 것처럼 이 책은 다소 특이한 체재를 취하고 있다. 먼저 이 책의 도론(導論)적인 ‘독호동거실법(讀衎衎居室法)’이라는 짧지 않은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동거실』 170수에 대한 번역과 평설인 ‘독호동거실’이 본문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독호동거실후(讀衎衎居室後)’가 수록되어 있다. 이런 특이한 체재를 취한 데 대해 저자는 청초(淸初)의 탁월한 비평가 김성탄(金聖歎)이 『수호전』과 『서상기』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진부한 인식을 깨트리고 두 작품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독수호전법(讀水滸傳法)’과 ‘독서상기법(讀西廂記法)’을 각 책의 평설 앞에 붙인 전례를 이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하나의 시집을 대상으로 자세히 평설을 붙이고, 그 내적 구조를 밝히고, 시들 상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미학적·사상적 의의를 해명한 책은, 부족한 대로 본서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라고 써서 이 책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천명하였다.

이 책은 비록 작품을 쫓 따라가는 평설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언

진의 생애, 사상, 문학사적·정신사적 위상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독호동거실법’에서 『호동거실』에 대한 종전의 연구들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 시집이 아직 ‘시’로서 연구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작품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재”를 꼽았고, 시적 맥락을 무시하고 연구자가 제 보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텍스트 읽기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필자가 보기에 실제로 저자는 『호동거실』에 대한 자세히 읽기를 바탕으로 170수의 시 각각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시적 맥락을 따지고, 시어의 근원과 뉘앙스를 파헤쳐 들어가고, 시의 의미론적 지평을 음미하고, 역사적 견지에서서의 비평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시집 평설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넓혀준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2. 이제 필자가 확인한 이 책의 미덕과 가치를 살펴보자. 먼저 저자는 ‘독호동거실법’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동호거실’이 아닌 ‘호동거실’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주었고, ‘저항과 아만(我慢)’이 『호동거실』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으로서 전방위적이고 발본적인 ‘저항’이 시인의 ‘아만’과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조선의 18세기가 사대부 계급에게는 문화적 르네상스였다손 치더라도, 이언진과 같은 주변인, 이언진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가 자각적으로 18세기 사대부 문화의 대척점에 자기를 위치시킨 채 글쓰기를 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대부 문화의 허상과 취약점, 그 국한성을 읽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시좌(視座)를 확보해준 것이다. 따라서 『호동거실』은 문학 및 미학과 관련된 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학 및 정치학과 관련된 책이기도 하다. 미학과 정치학의 결합, 이것이 『호동거실』의 내적 본질임을 저자는 평설을 통해 확인해주었다.

이 책의 본론인 ‘독호동거실’에서 저자는 이언진의 시 각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깊은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호동거실』 제1수 「새벽중 울리자 / 호동(衞衞)의 사람들 참 분주하네. / 먹을 것 위해 서거나 벼슬 얻으려 해서지. / 만인의 마음 나는 앉아서 안다.」(五更頭晨鍾

動, 通衢奔走如馳. 貧求食賤求官, 萬人情吾坐知.)의 평설에서 저자는 ‘호동 거실’의 함의를 치밀하게 설명하였고, 제19수 「호동에 가득한 사람들 그 모두 성현(聖賢) / 배고파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도. /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지니고 있음 / 맹자가 말했다 나 또한 말하네.(滿衢路皆聖賢, 但驅使饑寒苦. 有良知與良能, 孟氏取吾亦取.)의 평설에서 저자는, 양명학을 첨예화하면서 유교를 해체했으며 도가와 불교에 경사되었던 이지(李贄: 1527-1602)의 무엇을 이언진이 수용하고 극복했는지 설명하면서 그가 단순히 모든 인간이 양지(良知)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사회적 평등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제45수 「갑자기 이런 생각 떠오르누나 / 내 눈을 남에게 쥐버렸다는. / 눈에 정신이 있다면 이리 하소연하리 / “내 눈 찾아 내 몸에 되돌려주소!”(猛可裡想起來, 我有眼寄在人. 眼有神必叫冤, 尋我眼還我身.)의 평설에서 저자는 자기정체성의 문제를 언급한다. 이언진에게 있어 참나에로의 회귀란 사대부 계급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기 정립과 직결되며, 이 점에서 그가 이어나 이용후가 설정하지 않은 과제, 그들이 단 한 번도 본격적으로 묻은 적이 없던 사회적 의제(議題)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하였다.

제58수 「저잣거리의 구운 떡 / 어린애는 그 값을 아네. / 좋은 물건이면 그뿐 / 난 진짜 가짜 따위 가리지 않아.(市街頭賣炊餅, 小孩兒知時價. 只一件好東西, 吾不辨真和假.)의 평설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문 제4구에 보이는 ‘眞’은 바로 공안파(公安派)의 문학을, ‘假’는 이반룡(李攀龍)과 왕세정(王世貞) 등 고문사파(古文辭派)의 문학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제3·4구에는 이언진의 다음과 같은 생각이 담겨 있다: 명말 청초의 중국 문인들이나 당대의 조선 문인들은 대체로 일방적으로 ‘진’을 옹호하고 ‘가’를 내쳤다. 그러나 그들의 안목은 의심스럽고, 그들의 주장은 편협하다. 이른바 ‘진’이라고 해서 그 안목이 높거나 문예적 성취가 꼭 탁월한 것은 아니다. 원굉도(袁宏道)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세정은 그보다 안목이 높고, 훨씬 더 높은 봉우리며, 작품 세계가 호한하다. 그러니 왕세정의

문학을 싸잡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 나는 오직 작가의 문예적 성취를 존중해, 좋은 작품이거만 하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제대로 평가하고 배우고자 할 뿐이다. …… 이언진의 생각은 17세기 이래 동아시아 문학사의 ‘진가’(眞假) 논쟁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그가 자신을 어느 한쪽 진영에 소속시키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언진이 활동했던 18세기 당대의 조선 문학계에서 이런 주장은 대단히 이단적이고 비주류적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한·중 양국의 학자들은 대체로 공안파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고문사파를 ‘의고파’(擬古派)나 의고주의(擬古主義)로 부르고 있는바, 그들을 지칭하는 용어부터가 폄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이언진의 주장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역시 이단적이며 비주류적이라고 할 만하다.” 필자가 저자의 글을 비교적 길게 인용한 것은 그의 평설과 주장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시에 담겨 있는 이언진의 의중을 명쾌하게 해설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고문사파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른바 ‘전·후칠자’(前後七子)로 불리는 명대(明代) 고문사파들의 문학적 성취는 확실히 저평가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저명한 중국문학연구자 길천행차랑(吉川幸次郎)도 『원명시개설(元明詩概說)』에서 일찍이 이 점을 지적한바 있다.

제67수 「화나면 중 때리고, 기분 좋으면 황당한 얘기 하니 / 성품이 정말 진실된 거지. / 독서하는 사대부엔 이런 자 없거늘 / 수의사 장씨는 정말 난 사람.」(怒廡打喜說論, 性地實實眞眞, 讀書人無此輩, 張獸醫是好人.)의 평설에서 저자는 “이언진의 사대부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사대부 계급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자신의 신분인 중인층을 중심으로 하되 도시 상공인까지 포섭한 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사대부 계급과 대치하는 전선의 맞은편엔 중인층과 도시 상공인층이 있으며, 노비라든가 농민층은 여기서 배제되어 있다. 이 점은 『호동거실』의 전반적 특질과 한계를 투철히 인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시집이 도달한 지점과 미

처 도달하지 못한 지점, 이 시집의 놀라운 성취와 중대한 한계를 더욱 잘 음미할 수 있다.

제88수 「푸른 대바구니의 금빛 물고기 / 시골 아낙으로 분장했구나. / 세상에 나왔어도 내 집에 있으니 / 머리 조아리며 찬탄하는 사람 통 없어라.」(金色魚青竹籃, 扮一箇村裏婦. 出世適在吾家, 稽首讚歎希有.)의 평설에서 저자는 “이 시에는 세상이 이연진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대한 한탄의 염(念)이 담겨있다. 제1·2구는 자신이 비상한 재능을 지녔음에도 미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유비(類比, analogy)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제1·2구의 아날로지, 그리고 제3구의 ‘出世’, 그리고 제4구의 ‘稽首讚歎’이라는 단어에 이 시인 특유의 강렬한 자의식, 즉 아만이 표출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연진의 경우 아만과 저항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만이 높으면 저항의식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불화도 깊어진다. 그리고 불화는 비극성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우리는 이 시에서, 그리고 뒤의 시들에서, 이런 불화와 비극적 정조의 고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설했는데, 매우 수긍이 가는 말이다.

제104수 「이따지의 쌍도끼를 / 빌려 와 확 부숩버렸으면. / 손에 칼을 잡고 / 강호의 쾌남들과 결교했으면.」(李大哥兩板斧, 假弄來大破綻. 手裡別執朴刀, 結識江湖好漢.)의 평설에서 저자는 “『호동거실』의 시 중 이만큼 조선 왕조 체제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시는 없다. 시인은 반역을 꿈꾸며,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현 체제를 깨부숩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수립했으면 하는 원망(願望)을 피력하고 있다. 그 사상은 말할 나위도 없고, 어조와 표현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아마 이 시가 위정자의 손에 들어갔더라면 이연진은 필시 스물일곱 살 병으로 죽기 전에 처형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자의 평설 역시 이연진의 시 만큼이나 통쾌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142수 「산가지 잡아도 종횡(縱橫)은 모르고 / 저울을 들어도 고저(高低)는 모르네. / 술은 못 마시고 / 자식 기리고 아내를 무서워하네.」(握籩不知縱

橫, 舉秤不知高低. 不能樂聖避賢, 唯能譽兒畏妻.)의 평설에서 저자가 “제1구는 시인에게 비록 지모가 있긴 하나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말한 것. 역관은 임금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벼슬도 아니고, 임금에게 정책을 주달(奏達)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 제2구는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장사꾼이 될 수도 없음을 말한 것. 저울은 물건 값을 정할 때 쓰는 기구다. 저울을 잡아도 고저를 모른다 함은 상행위를 할 줄 모른다는 말. 이 시는 전체가 대구(對句)로 되어 있다. 제3구의 ‘樂聖避賢’과 제4구의 ‘譽兒畏妻’의 대(對)가 썩 묘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시의 내용과 수사기교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설한 것이다.

제144수 「나닐 때는 제 몸의 양 발로 다니고 / 앉을 때는 제 몸의 양 무릎으로 앉지. / 눈을 뜨고 스승을 닦아 버려야지 / 두발(頭髮) 있는 불상에 어디 두발이 있던가?」(行也隨身兩脚, 坐也隨身兩膝. 開着眼合着師, 沒箇髮留髮佛.)의 평설에서 저자는 “이 시는 ‘넓게’ 본다면, 행위와 삶과 공부의 주체인 ‘나’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좁게’ 본다면, 예술적 창작 주체인 ‘나’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랄 수 있다. ‘나’의 주체성에 대한 강조는 『호동거실』에서 여러 가지로 변주되어 나타나지만, 이 시는 스승과의 관계에서 이 점을 말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 스승에 대한 이언진의 이런 태도는 창신(創新)을 강조한 그의 문학적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승을 붙좃음은 법고(法古)에 구니(拘泥)됨과 연결되고, 스승을 여의는 것은 창신의 길을 활짝 여는 것과 연결된다. 이는 결국 창작 주체의 미적 자율성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역시 좋은 해설이라고 판단된다.

제166수 「창문 빛은 밝았다 어두워지나니 / 아교로도 한낮의 해 잡아둘 수 없네. / 종이 창 아래 한가히 앉아 / 온 지금, 간 옛날 가만히 보네」(窓光白窓光黑, 膠難粘日長午. 閒坐一紙窓下, 便觀來今往古.)의 평설에서 저자가 “이처럼 이 시에는 존재의 운명, 존재의 변전과 소멸을 고즈넉이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눈길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지상의 삶에 대한 응시인 것이다. 이 응시에는 존재에 대한 헛된 집착이나 발버둥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고 존재의 운명에 대한 체념과 받아들임의 감정이 자욱하긴 하나, 그럼에도 아쉬움과 회한의 감정은 못내 남아 있다. 이 시는 『호동거실』에서 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아니 그 삶과 죽음에 대해 노래한 맨 마지막 시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이 시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라고 해설한 것은 이 시의 심미 가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제169수 「이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 / 빠져나올 어떤 방법도 없네. / 팔십 되면 모두 죽여 버리니 / 백성도 임금도 똑같은 신세.」(此世界大牢獄, 沒寸木可梯身. 八十年皆殺之, 無萬人無一人.)의 평설에서 저자는 “시인은 이 세계를 거대한 감옥으로 인식하고 있다. …… ‘감옥’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부자유와 구속을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시인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시인은 왜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 추측해보면 하나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그를 구속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병으로 몹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보는 이런 염세적, 비관적 전망에는 시인의 처지에서 말미암는 기분이 투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이 시는 삶의 고통에 대한 시인의 남다른 감수성과 인간이 운명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깊은 응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값지다.”라고 하여 호소력 있게 시를 해설하였다.

제170수 「진부하기는 어록(語錄)과 같고 / 변쇄하기는 주석(註釋)과 같네. / 비유는 낮을수록 더욱 기이하고 / 글은 전기(傳奇)나 사곡(詞曲)과 같네.」(腐爛譬如語錄, 煩瑣譬如註脚. 其譬愈下愈奇, 文如傳奇詞曲.)는 『호동거실』 전체에 대한 자평이다. 저자는 이 시의 평설에서 매우 긴 편폭을 할애하여 이연진과 박지원을 비교하면서 “박지원은 중대한 실책을 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상적인 허약함과 파리함과 작달만 봤을 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연진 문학의 저 굉장한 내파력(內破力), 저 근원적인 미학적이자 정치학적이자 사회학적인 성찰과 상상력을 간과해버렸음으로써다. 이는 원기 위에 구축된 박지원의 문학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이보다 큰 실수가 있겠는가. 박지원은 겨자씨처럼 보이는 작은 것 속에 내

재한 수미산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박지원의 이런 실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언진은 박지원의 인식을 바깥에 있었으며, 따라서 박지원이 규정하거나 명명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 『호동거실』 전체에 대한 총평에 해당하는 이 맨 마지막 시에서 우리는 이언진의 자기 응시력, 그 지적 냉철함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언진을 평가하였다. 저자의 이와 같은 평가는 그가 박지원 연구자이기도 하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저자가 ‘책머리에’에서 밝힌 것처럼 “이언진은 박지원의 ‘타자’(他者)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언진을 통해 박지원을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냉철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언진을 경유하면 박지원은 물론이려니와 조선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된다. 이는 이 책을 써서 얻은 귀중한 소득의 하나다.”

이상에서 이 책의 미덕과 가치를 주마간산 격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의 미덕과 가치는 위에 든 몇몇 예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냉철하게 번득이는 저자의 예지를 이 책 도처에서 확인하게 된다. 이 책의 미덕을 하나 더 꼽자면 오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저자의 근엄하고 치밀한 글쓰기 태도가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3. 『호동거실』에 수록된 시 170수에 대한 저자의 번역문과 주석을 읽어 보면 번역문의 우리말다움에 감탄하게 되고, 주석의 간결하면서도 정세함에 탄복하게 된다. 이 책의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따로 예를 들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군데 필자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 곳도 있다. 제32수 제2구 「閒走兩瓦三畝」에 대해 저자는 “‘瓦’는 저자를 뜻하는 말. 와자(瓦子)나 와시(瓦市)라고도 한다. …… ‘畝’는 거리의 단위로, 30리를 뜻한다. 따라서 ‘三畝’는 90리가 된다.”라고 뜻풀이하고는 “백리 길 두 장터를 잘도 다니네.”라고 번역했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瓦畝’에 ‘瓦市’의 뜻이 있으므로 「兩瓦三畝」를 「兩三瓦畝」로 보고 “이 장터 저 장터를 잘도 다니네.”라고 번역해도 될 것 같다. 제42수 제3구 「雞生啄不待乳」를 저자는 “닭은 스스로 껍질서 나와 어미젖 필요 없고”라고 번역했는데, 필자는 제4구의



번역문인 “소는 나자마자 걸어 다녀 강보가 필요없네.”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닭은 나자마자 쪼아 먹어 어미젖 필요 없고”라고 번역하고 싶다. 제79수 제4구 「虔婆教女守節」에 대해 저자는 “원문 제4구의 ‘虔婆’(건파)는 고약한 할미를 뜻하는 백화. 동해원(董解元)의 『서상기제궁조』(西廂記諸宮調)에 이 말이 보인다.”라고 뜻풀이하고는 “못된 할미도 딸보고 수절을 권하리.”라고 번역했는데, 제3구의 번역문인 “홍한(兇漢)도 남의 장수를 빌고”와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虔婆’를 ‘못된 기생어미’로 보고 “못된 기생어미도 (기생) 딸에게 수절을 권하리.”라고 번역하고 싶다. 제151수 제2구 「終朝喉熱齒齷」의 ‘終朝’를 저자는 ‘아침나절’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하루 종일’로 번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한 마디 채언을 덧붙이자면 ‘독호동거실법’ 30(30쪽)에서 저자는 “이언진을 이장길(李長吉) 정도에 비유하다니, 이서구는 정말 비루하다.”고 썼는데, 이에 대해 필자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고 싶다. 물론 이언진은 이하(李賀)와 다른 점이 많고, 이서구가 이언진을 언급하며 ‘조선의 이장길’이라고 비유하는 방식 자체를 필자는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하는 한편 이언진과 마찬가지로 2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고, 당시 사회적인 악습으로 변질된 가휘(家諱)의 문제로 인해 과거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봉례랑(奉禮郎)이라는 9품의 말단관직을 지내는 데 그쳤다. 그리고 그가 남긴 240여 수의 시를 읽어보면 환관의 전횡과 번진의 할거로 부패가 극에 달한 현종(憲宗) 재위 때의 암울한 정국 위에 개인적 불행이 더해짐으로써 생겨난 날카로운 현실 인식이 그의 작품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어서 이하의 시는 개인적 서정뿐만 아니라 강렬한 사회의식까지 겸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더구나 그의 시에 표현된 시적 상상력은 지금까지 수많은 독자들의 애호를 받고 있어서 이하가 이언진과 비슷한 면도 적지 않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4. 저자는 ‘독호동거실후’에서 “『호동거실』이 보여주는 탈신분주의, 탈획일주의, 탈권위주의, 탈절대주의, 탈혈통주의,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지향,

주체에 대한 강한 긍정, 평등에의 지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옹호 등은, 이것들에 공연히 탈중세적이라거나 근대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더라도 당대 역사에, 그리고 후대의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호동거실』에 구유된 이 해방적 면모를 정당하게 인식하는 일일 터이다. 이 인식행위는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서있는 지평을 돌아보게 만들고, 보다 나은 사회와 행복한 삶을 위한 저항과 실천에 나서게 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이 점에서, 이 책에서 꾀한 이언진의 ‘호명’(呼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 할 터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비록 그는 스물일곱 해박에 살지 못했지만, 대가급 문인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으며, 조선문학사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짜 ‘괴물’이라 할 만하다. 괴물은 그 시대가 규정할 수 없으며, 미래에 속한 존재이므로.”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 지었다.

저자가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이언진은 그 시대가 규정하지 못한 ‘괴물’이었다. 그 괴물이 이 책의 저자 박희병 교수에 의해 비로소 제 모습을 되찾고 올바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